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지원 지역사회 지원 손 맞잡다

무주군, 관광객 대상 홍보·소비 촉진 위해... 23일까지 참여 업체·농가 접수

무주군이 올해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참여할 농가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전시판매장의 시설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에서다.



농·특산물판매장 무지개슈퍼.

주로 사과, 절임배추, 건나물, 잡곡 등과 사과즙, 장류 및 무주 2차 생산 가공품 등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고 있어 지속적인 매출로 농가 및 업체에 많이 보탬이 되고 있다.

2020년부터 시행했던 이 사업은 무풍면 무지개슈퍼, 적상면 수작부리는 카페, 설천면 동아상회 등 현재 8개소에서 연중 운영 중이다.

올해는 사업비 7,600만 원을 확보해 개소 당 1,900만 원씩 4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전시판매장을 연중 운영을 할 수 있는 군내 농업경영체, 사회적 기업, 유통업체 등이 대상이다.

희망 업체 또는 농가는 오는 23일까지 농촌활력 및 푸드플랜팅지원센터 산하에 신청해야 하며, 3월 초 현지 실사와 사업목적 부합성과 사업지역

적정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검토한 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군은 판매장 리모델링을 비롯해 집기 구입, 간판, 냉동·냉장 설비 설치 등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총력을 쏟을 예정이다.

농촌활력 및 푸드플랜팅 허준철 팀장은 "판매장은 마트 내 숭인슈, 관광지 주변 인접 등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선별 지원하고 있다"며 "코로

나19의 영향을 받아 매출이 고착 단계에 있으나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사업인 만큼 연중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판매장들이 많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 및 푸드플랜팅(063-320-2780, 2804, 2805)으로 문의를 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불법 지하수 근절·오염 예방 나서

6월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무주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와 오염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환경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이번 기회를 통해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제출해 인허가를 득하는 경우 미등록 지하수 시설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허가대상 시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대상 시설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준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수질검사와 이행보증금도 면제

받을 수 있다.

무주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시설팀 김대성 팀장은 "민원인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원활한 등록전환을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미등록 시설을 이용 중인 소유자들은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마쳐 불법 지하수 근절과 미래 수자원인 지하수 오염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로컬job센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 운영

장수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출장소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15일 한누리전당에서 진행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출장소는 고용노동부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주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실업급여지원, 무료 위탁교육, 정책홍보, 취업알선 및 연계 등이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1년 6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초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이 인정된다면 90~270일까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된다.

실업 급여지원을 받은 이후 자적 여부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유형, 2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1유형은 만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청년은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2유형은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청년과 특정계층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이후에는 진로상담, 취업활동계획수립 등이 이뤄지며,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후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취업자는 장기근속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상호 협력 강화 협약

진안군은 15일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경환)와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경환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장, 오아름 굿네이버스 전북지부장을 비롯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후원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진안군 위기가정 연계와 자문,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취약계층 어린이 위기지원 서비스 구축, △아동권리 옹호와 관련한 교육 정보 교류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사업에 상호 협력 △기타 상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굿네이버스 전북지부는 지역후원회 모금으로 제작된 진안군 여아 위생키트 및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다.

전춘성 군수는 "굿네이버스와 진안군이 협약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고 밝히며, "진안군의 위기 가정에 굿네이버스의 도움으로 어린이들이 살기 좋은 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환 본부장은 "굿네이버스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어린이를 돕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는 국내복지사업 및 아동권리옹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과 협력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권리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지방소멸 대응 인구활력 아이디어 공모

진안군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인구활력을 위한 참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나선다.

공모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30일이며, 이번 공모는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청년·일자리·경제분야, 교육분야, 주택·정주여건 개선분야, 보건 의료 확충 분야, 생활인구 확대 분야, 입주정착 분야로 총 6개이다.

이번 공모는 진안군 인구정책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접수는 진안군청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 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접수된 제안은 진안군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창의성, 경제성, 지속성 등의 심사를 통해 시상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부상금(금상 70만원, 은상 45만원, 동상 25만원, 장려상 10만원)으로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등이 수여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미용·목욕비 지원

장수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 및 목욕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노인 이·미용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1만원 쿠폰(군보조금 9,000원, 본인부담금 1,000원)을 지급해 이·미용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작은 목욕탕이 없는 5개 면의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매월 5천 원 쿠폰(군보조금 3,500원, 본인부담금 1,500원)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업이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생활 위생 개선과 품위유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째 추진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9억 5,725만 원이 투입된 노인 이·미용비 및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2022년 1분기 기준 이·미용비 7,660명, 목욕비 5,332명이며 군은 지난 1월 협약업체와 협약을 완료했다.

노인 이·미용권 및 취약계층 목욕권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폐회

무주군의회(의장 박찬주)가 지난 14일 제29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주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2022년 무주 군정의 흐름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14일에는 이해연 행정복지위원장 대표발의 '용담면 방류피해 배상결정 부담 및 배상금 재산정 촉구 결의안'이 원안 채택,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었다.

박찬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올해는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로 임기 마지막까지 군민 여러분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내주시는 믿음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한 마음 한뜻으로 함께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추운날씨에도 방역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토양개량제 접수

진안군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신청·접수를 오는 4월 20일까지 추진한다.

신청 받는 토양개량제는 3년 1주기 공급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공급물량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농업경영정보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산질 비료와 석회질비료를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공동살포 한다.

2023년에는 진안읍, 용담면, 안천면, 상전면, 백운면, 2024년에는 백운면, 성수면, 마령면, 정천면, 2025년에는 용담면, 동향면, 부귀면, 정천면, 주천면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